

여행이 좋다(네이버 밴드)

2022년 12월 20일 오후 4:43 230 읽음

엄마.나의 엄마.

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때
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
27세 어린 과부는 부른 배를 끌어안고
세상천지 갈 곳이 없어 울면서 헤매고 다녔단다.
그러다 나를 낳고 졸지에 미혼모가 되어
나를 동네 세탁소에 맡겨놓고 일을 다니셨는데 세월이 흘러 그 세탁소 부부에게 은혜를 갚고
자 무던히도 애쓰며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.

그런데 내 어머니는 특이한 분이셨다.

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엔 내 인생이 아깝다며 먹여주고 재워 줄테니 각자도생 하자는
걸 늘 강요하셨다.

그런 엄마가 미워서 사춘기 시절을 혹독하게 보냈다.

내 친구들은
학교가려 아침에 바쁘게 등교 준비하면
그 어머니가 밥을 김에 말아 어떻게든 입에 넣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학교를 서성이는
데
내 어머니는 그깟 비 좀 맞으면 어떻다고
그거가지고 징징 거리느냐 날 나무라셨다.

미운 우리 엄마.
어디 두고 봅시다.

그러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엄마가 변하기 시작하는데
우리엄마한테 이런 모정이 있었나 싫을 정도로 손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거다.

난 한 번도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는 애정 표현을 하시며 새벽부터 손주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
서 잠들기 직전에도 손주를 위한 기도가 마무리다.

몇 년 전
내가 많이 아파 전에 없이 내가 내 몸을 맘대로 못 한 적이 있었다.
그때 엄마가 통곡을 하시면서
나 때문에 니가 이렇게 되었다며
내 탓이다. 내 탓이다

소리높여 우시는데 나도 나지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울 수도 있는 사람이었나?
신기해서 쳐다보았다.
어색하기도하고.
그러기에 진즉 좀 잘 해 주시지.

그러다 얼마 전 나를 보시며
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잘 간수하라고 주신다.
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카드.

1

"내가 생사를 헤맬 때 절대 목숨 부지를 위한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말아라. 편하게 가고자
하는 내 뜻이니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라"
울컹!
그러나 눈물을 꼭 참았다.

노인네가 이걸 만들자고 그 더운데 세종시 보건소까지 가서 신청했단다.
스스로 준비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온다

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
하루하루 쓰러지듯 잠드는 일과가 요즘이다보니 밥도 잘 못 챙겨먹고 어지럽다하니 파김치를
담그어
국물이 흐를까봐 비닐봉지에 싸고 또 싸고
택배를 보내셨다.

1

뒤늦게 모친의 사랑을 받는다.

때로는 밉고
때로는 야속하고
때로는 소녀같은 내 어머니.

내가 세계일주를 하려 한다니까
넌 할 수 있다며 때로는 일상의 모든걸 눈 딱 감고 너 하고싶은 일도 해야한다고 격려 해 주
신 내 어머니.

이젠 내가 내 입으로

"엄마"라고 부를 사람이 있다는것만도 감사하다.

나도 내 자식을 위해 사전연명의향서 카드를 만들어야겠다.

어떻게하면 내 어머니가
하루하루가 행복하실까

냉정했지만 현명했던 엄마.
모든게 당신 덕분입니다.